

# 노근리 사건 평화 수업 구성안(초·중·고)

## 인권과 평화의 상징 노근리 사건 에듀테크와 만나다

### 1 수업개요

주제	• 인권과 평화의 상징 노근리 사건, 에듀테크와 만나다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근리 사건의 역사를 바로 알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할 수 있다.</li> <li>• 학교의 교육환경 변화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노근리 사건을 학습할 수 있다.</li> </ul>	
수업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역사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노근리 사건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li> <li>•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노근리 사건을 탐구하고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li> <li>• 노근리 사건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학습하고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도록 한다.</li> </ul>	
지도상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해하고 노근리 사건이 갖는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깨달도록 지도한다.</li> <li>• 노근리 사건을 다룬 영화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영화의 주요 장면을 팩트체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 이해 능력과 역사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li> <li>• 노근리 사건을 재현한 메타버스가 단순히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가상공간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가상 체험하는 학습공간임을 분명하게 안내하도록 한다.</li> </ul>	
관련 단원	중학교 역사②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고등학교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 2 교육활동 흐름

#### 수업 활동 (3단계) | 인권과 평화의 상징 노근리 사건, 에듀테크와 만나다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노근리 사건 바로알기</li> <li>• 주요 내용: 교과서로 보는 노근리 사건/ 노근리 사건 탐구하기/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 활동/ 노근리 사건과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li> <li>• 주요 활동: 노근리 사건 타임라인 카드 뉴스 만들기, 노근리 사건 가상 5일 일기 쓰기, 〈노근리 사건 SNS〉 작성하기, 노근리 사건 배지 도안하기, ‘나에게 노근리 사건이란?’ 인증샷 찍기</li> </u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영화로 보는 노근리 사건</li> <li>• 주요 내용: 영화 〈작은 연못〉 주요 장면 보기/ 영화와 역사 팩트체크</li> <li>• 주요 활동: 생성형 AI 투닝을 활용한 4컷 만화 그리기/ 생성형 AI 자작자작을 활용한 노근리 사건 역사 글쓰기</li> </ul>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메타버스로 만나는 노근리 사건</li> <li>• 주요 내용: 노근리 사건과 영화 〈작은 연못〉 주요 장면을 썸(ZEP) 메타버스 공간으로 재현하기</li> <li>• 주요 활동: 썸(ZEP) 메타버스 공간에서 6·25 전쟁과 노근리 사건 퀴즈 풀기 및 가상 체험 활동</li> </ul>

# 노근리 사건 바로 알기

## 노근리 사건, 평화와 인권을 찾는 여정

### 1 수업개요

주제	• 노근리 사건을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 알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인하기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근리 사건을 바로 알고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역사적 감정이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li> <li>• 피해자 중심의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노근리 사건의 진실과 역사적 의의를 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할 수 있다.</li> <li>• 노근리 사건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li> </ul>	
수업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노근리 사건의 배경, 전개 과정,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 과정 및 역사적 의의를 바로 알도록 한다.</li> <li>• 피해자 중심의 진상 규명 과정이 갖는 의미를 알고 노근리 사건이 남긴 문제점을 학생들이 찾아 보도록 한다.</li> </ul>	
지도상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근리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6·25전쟁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한다.</li> <li>• 학생들이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노근리 사건을 스스로 탐구하도록 지도한다.</li> <li>• 학생들이 노근리 사건이 지닌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li> </ul>	
관련 단원	중학교 역사②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고등학교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 2 교수·학습 과정안

#### 수업 활동 (1차시) | 노근리 사건을 탐구하고 타임라인 카드 뉴스와 가상 5일 일기 쓰기

도입 (동기유발)	• TV 프리한 19 프로그램 중 <노근리 사건>을 다룬 영상 (약 3분)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에서 다루는 노근리 사건을 살펴보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노근리 사건을 탐구한다.</li> <li>• 역사적 사실은 근거로 노근리 사건 타임라인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모둠원에게 설명한다. → <b>[학습 활동 1] 활용</b></li> <li>• 노근리 사건 희생자의 삶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가상 5일 일기를 작성하고 모둠원과 나눈다. → <b>[학습 활동 2] 활용</b></li> </ul>
정리/마무리	• 모둠원 중 1명을 선발하여 가상 5일 일기를 발표한다.

#### 수업 활동 (2차시) | 노근리 사건을 알리는 <노근리 사건 SNS> 작성 및 배지 도안하기

도입 (동기유발)	• MBC 충북 NEWS <노근리 찾은 특종 기자. 20년 취재 기록 기증> 영상(약 3분)을 보고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근리 사건이 지닌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SNS를 작성하여 모둠원과 공유한다. → <b>[학습 활동 3] 활용</b></li> <li>• 노근리 사건을 일상에서 기억할 수 있는 배지를 도안하여 모둠원에게 설명한다. → <b>[학습 활동 4] 활용</b></li> <li>• 배지 도안을 칠판에 부착하여 전시하고 스티커를 붙여 실제 배지로 제작할 도안을 선정한다.</li> <li>• '나에게 노근리 사건이란?'을 작성하여 인증샷을 촬영하고 교실 뒷면에 전시한다. → <b>[학습 활동 5] 활용</b></li> </ul>
정리/마무리	• 학생들이 작성한 SNS를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나에게 노근리 사건이란?' 인증샷은 웹 지도 <함께 만드는 노근리 지도> <a href="https://nogunri.vercel.app/login">https://nogunri.vercel.app/login</a> 에 업로드한다.

# 노근리 사건 바로 알기- 1차시

## 1. 생각 열기

### 노근리 사건을 아시나요?

#### ① ‘노근리 사건’에 대해 아는 대로 작성해보자.

(예시: 역사적 사건, 년도, 관련 인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세요.)

---

---

---

#### ② TVn <프리한 19>를 시청한 후 교과서 속 <노근리 사건>을 읽고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작성해보자.

(예시: 역사적 사건, 년도, 관련 인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세요.)



▲ TVN <프리한 19> 장면

---

---

---

### <교과서 속 노근리 사건>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기간 중 1950년 7월 25일부터 동년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의 경부선 철로 일대에서 미 공군의 공중 폭격과 기총 소사, 미 지상군의 사격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살상 사건이다. 2001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 미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살상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였다.

-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보고서” -

---

---

---

---

---

---

---

---

---

---



출처: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 한국사 교과서(동아출판사)

6·25 전쟁



▲ 애치슨 라인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외치며 반공 체제를 다졌고, 김일성은 평화 통일 공세를 벌이면서도 실제로는 전쟁 준비를 해나갔다. 한편, 미·소 양군이 철수를 완료한 1949년 여름부터 그해 겨울까지 38도선 일대에서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빈발하였다.

철수 이후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면서도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통해 남한을 지원하였다. 소련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고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하였다. 중국도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북한을 도와 참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애치슨 라인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태평양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일본과 오키나와-필리핀군도'로 이어지는 선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과 타이완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함을 의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였다. 하지만 남북은 38도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벌였다. 한편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군사 지원을 받고, 소련의 승인을 얻는 등 남침 준비를 진행하였다. 중국도 필요한 경우 참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이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자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워 3일 만에 서울을 차지하고, 빠른 속도로 낙동강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였다. 곧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였다.

유엔군 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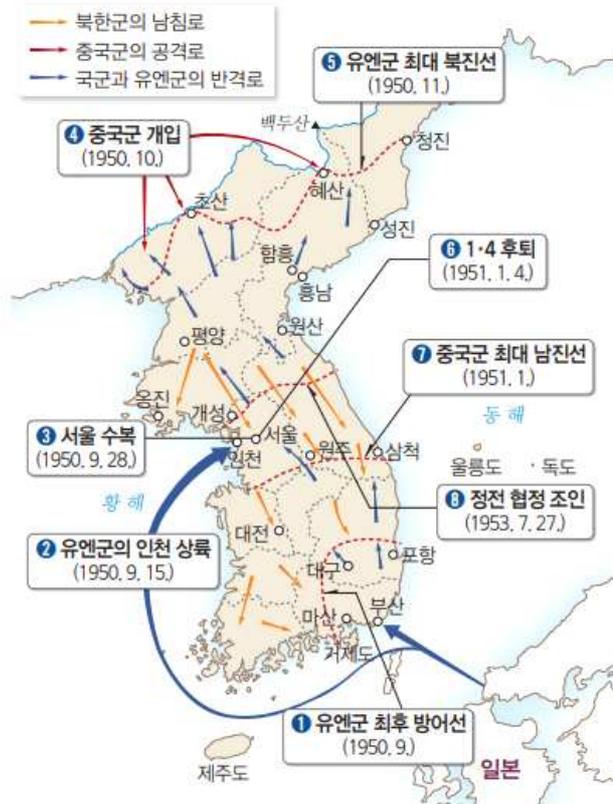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 (1950)  
 ……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 행동이 평화 파괴를 조성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간주하며, 전쟁 행위의 즉시 정지를 요구하고 또한, 북한군을 즉시 북위 38도선까지 철수시킬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

6·25 전쟁에서 병력 지원 16개국 이외에 총 63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던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전세를 역전하고 서울을 되찾았다. 이어 38도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출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한강 이남으로 물러났다(1·4 후퇴).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지만,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전쟁이 38도 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이 먼저 정전 협정을 제안하였다. 6·25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미국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군사 분계선 설정, 포로 송환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정전 회담은 2년여 동안 계속되었다. 정전 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38도선 부근에서는 계속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여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기도 하였다. 회담이 시작된 지 2년 만인 19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 협정에서는 중립국 감독 위원회와 군사 정전 위원회, 비무장 지대 설치에 합의되었다. 정전에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도 미국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경제 원조 등을 약속받고 정전 협상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6·25 전쟁의 경과

### 정전 협정(1953.7.27.)

- 하나의 군사 분계선을 긋고 그로부터 쌍방이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 지대를 설정한다.
- 한반도의 외부로부터 어떠한 무기도 추가로 반입할 수 없다.
- 정전 상태의 감시와 유지를 위해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를 운영한다.

- 육군 사관 학교, 『한국 전쟁사』 -

군사 분계선 이외의 조항은 대부분 사문화되어 있다. 1956년 미국이 무기 반입 금지의 무효를 선언한 이후 남북은 외부의 지원을 받아 군비 증강을 해 왔다. 1990년대에는 북한이 정전 관리 기구를 해체하였고, 비무장 지대도 실제로는 무장 상태에 있었다. 2018년에야 남북은 이 구역의 군사 시설을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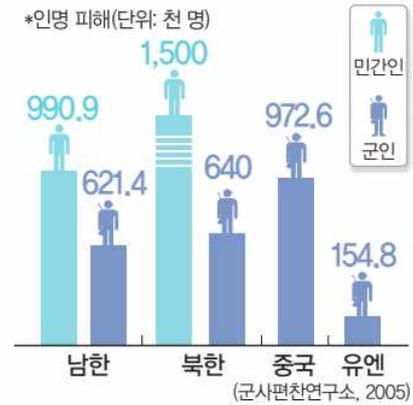
###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

6·25 전쟁은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낳았다. 남북의 군인과 민간인 수백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와 과부 그리고 천만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이 생겨났다. 수많은 주택, 건물, 도로, 교량 등이 파괴되었으며, 산업 시설도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전국이 폐허로 변하였다. 남한의 제조업은 절반 가까이 파괴되었고, 북한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전쟁 과정에서 특히 민간인이 희생이 컸다. 북한군은 '반동분자'를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였고, 대한민국 군경도 북한에 협력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하였다. 이 밖에 폭격이나 상호 보복으로 희생된

사람도 많았다.

6·25 전쟁의 결과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고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켰고, 사회주의권에 서 위상이 높아진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일본은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군사적 재무장을 하여 동아시아 반공 전선의 한 축을 이루었다.

전쟁으로 이념 대립과 적대 감정도 깊어졌다. 남과 북에서는 각각 ‘빨갱이’나 ‘반동분자’로 낙인찍히면 사실상 그 사회에서 배제되는 흑백 논리가 퍼졌다. 남북의 정권은 전쟁에 대한 공포심과 상호 적대감을 활용하여 어떠한 불만이 나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억압적인 독재 체제를 만들어 갔다.



▲ 6·25 전쟁의 피해

###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

3. 각 당사국은 ……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4.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전쟁 중 민간인 학살과 집단 학살

6·25 전쟁 기간 중 남과 북에서는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수만 명의 국민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처형당하였다. 경남 거창 등 지리산 인근에서는 좌익 유격대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충북 영동 노근리에서는 미군이 피난민 행렬에 발포하여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북한군도 각지에서 인민재판을 열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처형하였고, 전라남도 영광과 함경남도 함흥 등지에서 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쌍방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은 서로 간의 적대감을 강화하였다.

※ 국민 보도연맹: 1948년 정부가 좌익 전향자들을 보호·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한 단체로 원래 취지와 달리 좌익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많이 가입시켰다.



▲ 「한국에서의 학살」(1951, 프랑스 파리 피카소박물관)  
6·25 전쟁 기간에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묘사한 피카소의 작품

### 자료 1 서울대 부속 병원 사건(1950. 6. 28.)

서울대학 병원의 경우 1개 소대 규모의 경비병이 병원을 지키고 있었으나 새벽에 적이 시내에 침입하자 움직일 수 있는 전상자 80여 명을 성명 불상의 장교가 지휘하여 동 병원 뒷산으로 올라가서 적을 최후까지 저지하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그리고 남아 있던 중상자 및 일반 환자들은 뒤늦게 침입한 북괴군에 의하여 학살을 당하였으니 그 처참한 광경은 이를 형용키 어려웠을 것이다.

- 국방부, “한국 전쟁사” -

### 자료2. 두 개의 대전 형무소 사건

① 1950년 7월 1일 대전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공산당 우두머리를, 좌익의 극렬분자를 처단 하라.’라는 전문을 대전 형무소 당직 주임에게 하달한 후 피란길에 올랐다. 마침 이날 임시 감방에서 미결수들이 감방 문을 여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제2사단 헌병대와 제5연대 헌병대가 재소자 인도를 요구하며 처형 작업이 시작되었다.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산내 골령골에서 처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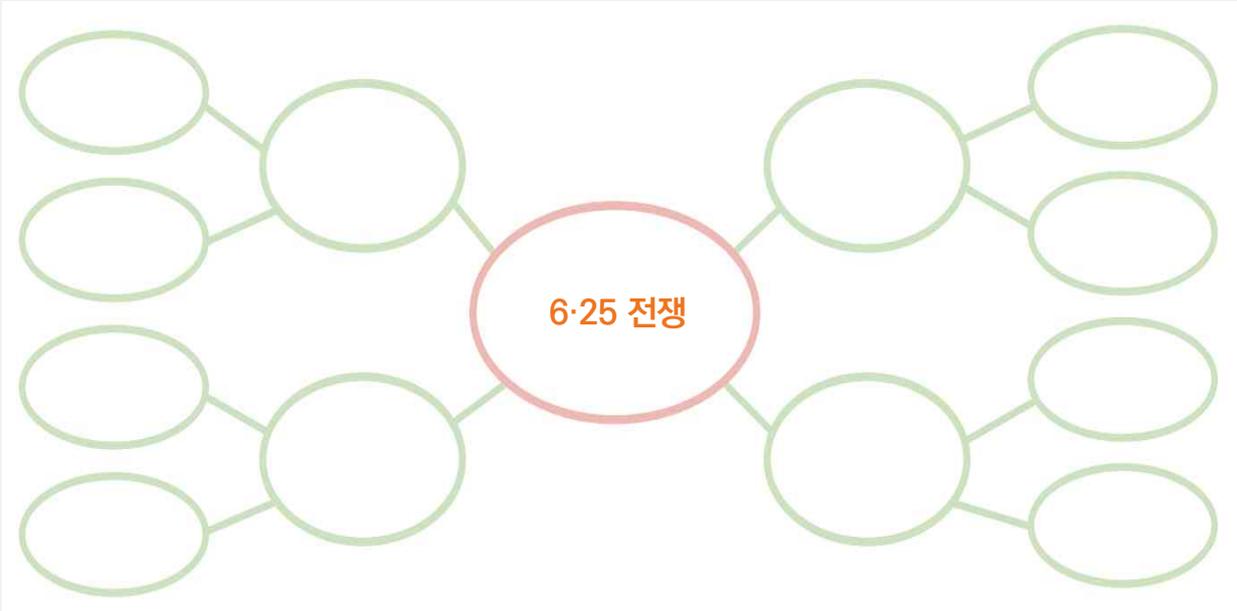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종합 보고서” 3 -

② 대전 형무소 사건의 희생자들은 주로 충남 지역의 분주소와 내무서, 정치 보위부에서 끌려와 대전 내무서나 대전 정치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은 후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우익 인사들이다. …… 대전 형무소 수감자들은 1950년 9월 25일 새벽에서 9월 26일 새벽 사이 대전 형무소 후문 쪽 온상의 밭고랑, 취사장 우물, 용두산, 도마리, 탄방리 등으로 끌려가 희생당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종합 보고서” 3 -

＝ 학습 활동 ＝

1. 6·25 전쟁을 마인드맵으로 정리 해보자.



2. 6·25 전쟁의 참상과 피해를 조사해 보자. (\*인터넷 검색 활용)

---

---

---

---

3. 6·25 전쟁 중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해 보자. (\*인터넷 검색 활용)

---

---

---

---

3.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까닭을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작성해보자.

---

---

---

---

### 3. 노근리 사건 바로 알기

## 노근리 사건

### 1. 노근리 사건 개요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와 임계리 주민 등 피난민 수백명이 황간면 노근리 부근의 경부선 철길과 쌍굴다리에서 유엔군의 일원인 미군의 기관총 및 소총 사격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노근리사건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86호, 2021. 10. 19., 전부개정]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1950년 7월 25일

한국전쟁 초기 1950년 7월 23일 충북 영동읍 주곡리 주민들은 마을을 비우라는 미군의 명령을 받고 인근 산골 마을 임계리로 피난을 갔다. 7월 25일 저녁 미군은 안전한 남쪽으로 피난시켜주겠다며 충북 영동읍 임계리에 모인 인근 주민 500~600명을 강제로 남쪽으로 피난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은 남한을 도우러 왔다는 미군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미군은 날이 저물자 피난민들을 하가리 냇가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피난민들을 이끌던 미군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피난민들은 4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 1950년 7월 26일 낮

7월 26일 정오경 서송원리쯤에 이르자 사라졌던 미군이 나타났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국도 옆 경부선 철도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피난민들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 철도를 따라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피난민들이 노근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 미군들은 피난민들의 몸과 짐을 수색하였다. 그리고 다시 미군은 사라졌다. 잠시 뒤 철로에 쉬고 있는 피난민들을 향해 미군 비행기가 공중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생존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중 폭격으로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 아침

미군 비행기의 공중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근처 노근리 철교 아래 쌍굴다리 안으로 피신했다. 이때부터 제1기병사단 7기갑연대 소속 미군은 쌍굴다리 안에 갇혀 있는 피난민들을 향해 29일 새벽까지 무려 3박 4일, 약 70시간 동안 쌍굴다리 앞 뒷쪽의 진지에서 쌍굴 안으로 기관총 및 소총 사격을 지속하였다. 미군의 사격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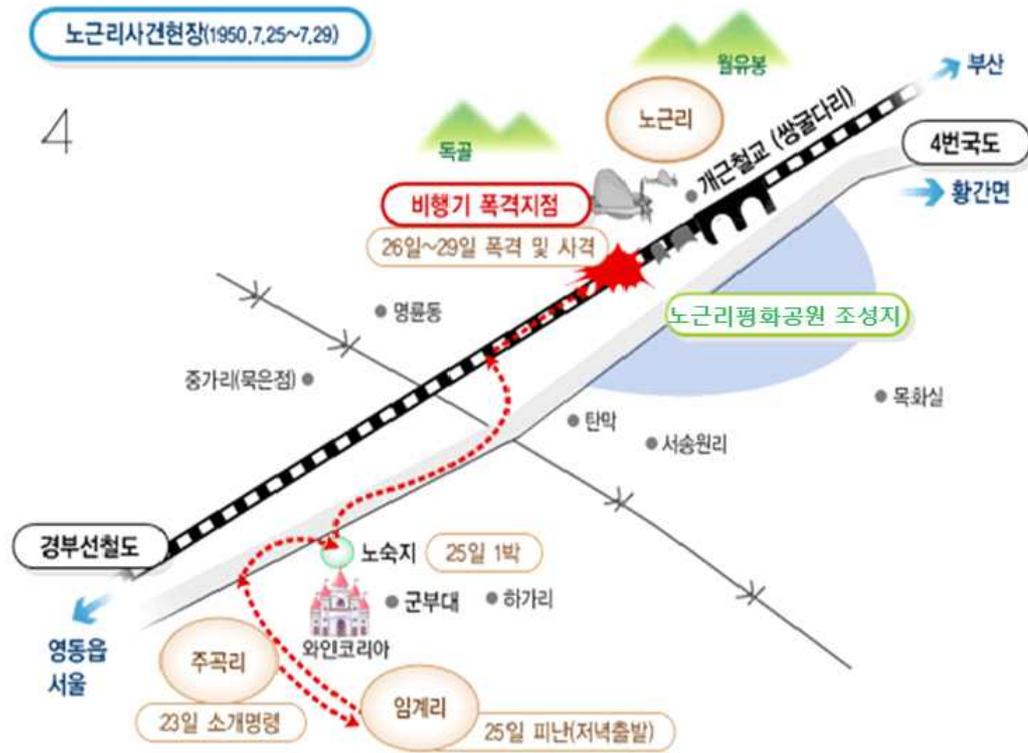
▲ 피난을 떠나는 주민들



▲ 경부선 철길에 있는 피난민들



▲ 쌍굴 다리안에 있는 피난민들



노근리 사건 현장(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철로 일대)

### 시간대별로 보는 노근리 사건



## 2.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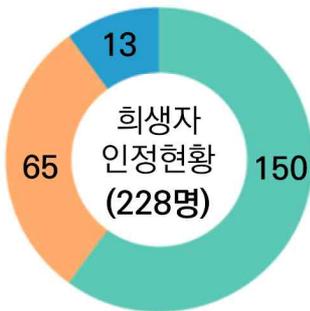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기간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동맹국인 미국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피난민들을 향해 발포해 한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228명이 죽거나 다쳤다. 당시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미군이 북한군과 전투를 하던 상황도 아니었고 오인 사격도 아니었다. 미군들은 피난민들을 포위한 채,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총격을 가했다.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노근리사건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86호, 2021. 10. 19.,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사망자
- 후유장애
- 행방불명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민간인 피난민이다. 1950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미군은 충북 영동읍 주곡리와 임계리 주민, 피란민을 남쪽으로 인솔하였다. 7월 26일 정오께 황간면 서송원리에 도착한 피난민들은 미군 비행기의 공중 폭격을 당한다. 이 과정에서 1차로 다수 주민이 사망했다. 살아남은 피난민들은 노근리 쌍굴다리로 피신했다. 이날 오후부터 7월 29일까지 약 70시간 동안 미군은 주민을 포위한 채 사격을 가했다.

2004년과 2008년, 그리고 2023년도에 한국 정부가 희생자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인정된 희생자는 228명(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5명)이다. 생존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실제 희생자 수는 더 많다’고 주장한다. 희생된 사람들의 72%가 노인과 부녀자, 어린이들이었다. 사망자 가운데 영·유아 및 10살 이하의 어린이들도 있었다.



▲ 6·25 전쟁 당시 학살 현장인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모습

## 노근리 사건 생존피해자 및 유족들의 증언들

1. “웅기종기 앉아 있던 가족이 죽사했어요. 쌍굴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막 하얗게 엷어져 있었어요. 뒤집혀져서 얼굴을 못 봤어요. 누군지, 푹푹 엷어져서 총알을 맞아서 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렇게 하루는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박선용님 증언)

출처: 노근리평화기념관 도록 32쪽  
<https://youtu.be/nbDuzW-qXOg>



**박선용(Park Seonyong)의 증언**  
 웅기종기 앉아 있던 가족이 죽사했어요. 쌍굴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막 하얗게 엷어져 있었어요. 뒤집혀져서 얼굴을 못 봤어요. 누군지 푹푹 엷어져서 총알을 맞아서 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렇게 하루는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2. “쌍굴에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걸 기억하고, 그러다 얼굴에 따듯한 물이 주르륵 흐른 것, 그게 생각나는데 그때 다친 거 같아요. 그때 얼굴을 다쳐서 피가 주르륵 흐른 것 그러고는 기억이 없는데...”(정구학님 증언)

출처: 노근리평화기념관 도록 32쪽  
<https://youtu.be/FtVRd1FXRcs>



**정구학(Jeong Guhak)의 증언**  
 쌍굴에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던 걸 기억하고 그러다 얼굴에 따듯한 물이 주르륵 흐른 것 그게 생각나는데 그때 다친 거 같아요. 그때 얼굴을 다쳐서 피가 주르륵 흐른 것 그러고는 기억이 없었는데...

3. “거기서 밤을 새우는데 맞은편에서 쫓는지, 하여튼간에 총알이 밤새 번갯불같이 밤새도록 총격이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굴 안에서, 총알을 피할 순 없잖아. 거기서, 누나도 거기서 죽고... 나는 어머니 무르팍에 앉았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엄마는 돌아가시고” (김부의님 증언)

출처: 노근리사건 생존피해자·유족 구술기록 요약집 48쪽  
<https://youtu.be/VvhnplipOvE>



**김부의(당시 18세)** (의사 부장, 어머니, 형제 3명 사망)  
 우리식구들은 (임계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총을 든 군인(미군)들이 들어오더니 전부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4. “밤만 되면 막 공 튀듯해 총소리가. 막 반짝반짝 불빛이 나고... 그게 폭탄이겠지 뭐. 그런 것도 보이고, 앞에 사람이 총 맞아 가지고 물 먹으려고 물에서 허브적거리는 거 그런 것도 보고.”(이수환님 증언)

출처: 노근리사건 생존피해자·유족 구술기록 요약집 185쪽  
<https://youtu.be/W-JZl4nKm5Y>

5. “폭격이 막 떨어지고, 우리 어머니도 살라고 시체 밑으로 들어갔다데... 저기 노근리 굴 있잖아요. 그 굴 아래 물 내려오잖아요, 거기는 온통 빨간 핏물이었다 하데, 그래도 너무 목이 타니까 그 핏물을 먹었는 거라.” (이지영님 증언)

출처: 노근리사건 생존피해자·유족 구술기록 요약집 202쪽

6. 노근리 사건으로 한쪽 눈을 잃고 인고의 세월 겪은 고 양해숙 할머니

충북 영동군 임계리 주민 고 양해숙 할머니의 왼쪽 눈은 한국전쟁이 70년이나 지난 지금도 전쟁의 흉터로 남아 있다. 1950년 7월 26일 피란길에 노근리 쌍굴에서 미군의 기관총 사격으로 눈을 잃었다. 당시 13살이던 그는 무차별적으로 쏜 미군의 총탄에 빠져버린 눈알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떼어낸 비운의 어린 소녀였다. 그는 “그때 눈이 빠져 덜렁거리는데 어찌지를 못해 엄마 나 눈 좀 떼 줘! 라고 소리 질렀다. 그런데 엄마도 다리에 파편을 맞아 움직이지 못해 할 수 없이 내가 눈을 꼭 잡아당겼지”라고 당시의 아픔을 회상했다.

그 후 이렇다 할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한쪽 눈을 실명한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세월을 보냈다. 이후 50여 년이 지난 2000년 노근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피해 당사자로 진상규명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1999년에는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USA)의 초청으로 노근리 피해자들(노근리사건 대책위원장인 정은용씨(77)와 양해숙(61·여), 금초자(61·여), 정구학(55), 정구도씨(45) 등 5명)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클리블랜드와 워싱턴DC 등에서 미군에 의한 피난민 학살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 양해숙 할머니는 2024년 5월 별세하였다.

출처: [https://youtu.be/iq2pus\\_nHDg](https://youtu.be/iq2pus_nHDg)



**양해숙(Yang Haesook)의 증언**

한쪽 눈으로 보니까 달린 게 이렇게 커가지고 보니까 눈이 빠진 거예요. 눈이 빠져서 달려 이라고 있는데 눈 때문에 업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려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어머니 눈 좀 떼어줘 눈이 빠졌는데 이걸 떼어야 어머니한테 업드리지 이거 좀 떼어줘" 이러니까.....

## 참전 미군의 증언들

(출처: 노근리평화기념관 도록 33쪽)

### 1. 델로스 프린트의 증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난 아무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교가 우리더러 피난민들을 쓰라고 했지만 나는 쓰지 않았습니다. 쌍굴다리 안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델로스 플린트(Delos Flint)의 증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난 아무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장교가 우리더러 피난민들을 쓰라고 했지만 나는 쓰지 않았습니다. 쌍굴다리 안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4bavHHOSYNY>

### 2. 맥 힐리어드의 증언

“저는 게이사단장으로부터 내려온 명령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명령은 미 제8군 사령부의 명령에 근거하여 사단장이 내린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민간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맥 힐리어드 (Mac Hilliard)의 증언**

저는 게이사단장으로부터 내려온 명령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명령은 미 제8군 사령부의 명령에 근거하여 사단장이 내린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민간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3Jueut\\_AXzo](https://youtu.be/3Jueut_AXzo)

### 3. 조 잭먼의 증언

“다 죽여! 대령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다 썩버려. 나도 썩습니다. 그들이 군인인지 뭔지 몰랐습니다. 어린애들도 있었습니다. 8살이든 80살이든 눈이 멀었건 다리를 절건 상관없이 마구 썩였습니다.”

출처: <https://youtu.be/vrkcMBaWgDc>

### 4. 조지 얼리의 증언

“중대장이 “내려가! 난 기관총을 가졌다. 저 사람들을 다 썩”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다 썩 순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위는 권총을 뽑아 내 귀를 겨누며 “다 죽여”라고 했습니다. “넌 전쟁터에서 항명할거냐? 널 죽이겠다.”

출처: <https://youtu.be/U8gubERtUnU>

## 〈52년 만에 전달된 미군 병사의 편지〉

이 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52년 전 노근리사건 현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 당시 11세 소년이었던 서정갑은 그의 가족과 함께 주곡리, 임계리 주민 등 500-600명의 피난민 대열 속에 섞여 경부국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이들이 서송원리 부근에 이르자 미군들이 이들 피난민 대열의 앞을 막고 이들을 경부선 철도 위로 강제로 인솔했다. 그리고 철길을 따라 노근리 쪽으로 수백 미터를 이동하게 했다.

철로 위에서 피난민들의 짐과 몸 검색을 마친 뒤 미군기의 공중공격으로 100여 명의 사람이 죽었다. 이때 서정갑은 발목에 파편을 맞았다. 혼비백산한 가족들과 헤어진 그는 철로 위에서 쌍굴 후면 쪽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노근리 쌍굴 뒤편 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미군이 총을 쏘 무릎 근처를 다시 맞았다. 어린 소년의 몸에는 이미 선혈이 낭자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노근리 쌍굴과 노근리 마을 사이에 있는 논밭을 기어 필사의 탈출을 시도했다. 7월 하순의 폭염하에 제법 자란 벼를 헤치며 노근리 마을 쪽으로 접근해 갔다. 그리고는 노근리 마을 입구에 있는 또 하나의 철로 밑 외굴다리 가까이 다다랐을 무렵 미군이 쏜 총에 다시 사타구니를 맞고 기절하고 말았다. 이때 한 미군이 사경을 헤매는 소년을 측은히 여겨 그를 안고 노근리 마을 입구에 있는 경부선 철로 밑 굴다리로 안고 가 위생병에게 치료를 받게 했다. 이 사람이 바로 편지를 보내 온 조지 얼리였다.

그후 서정갑은 미군 지프에 태워져 김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이 내용은 서정갑씨(63세)가 털어놓은 52년 전 노근리사건의 아픈 기억과 얼리의 편지를 비교·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노근리사건 당시) 나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난 51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살아 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돼 무척 기쁩니다. 이제는 나의 악몽을 끝낼 수 있게 되었군요. 당신이 총에 맞은 후, 당신이 부상을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지요. 그러나 부상을 입은 당신이 살아났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15세에 군에 입대해 그 사건 당시 겨우 16살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총을 쏜 사람의 이름은 브루노(Bruno)입니다. 그는 내 중대장의 보디가드였습니다. 브루노가 당신에게 총을 쏜 후에 우리(부대원)는 그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후에 다른 보병중대로 전출했습니다. 나는 그가 전쟁에서 살아남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우리 부대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우리 중대장은 부하들과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 군법재판에 회부되고, 형무소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대장은 어느 날 밤 한번은 기관총으로 민간인들에게 사격하라는 명령을 거절했다고 나를 총으로 처형하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비디오테이프(영국 BBC 취재팀이 한국에서 서정갑씨를 취재한 비디오테이프)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일치합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너무 빨리 일어나 내가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생명을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그 점을 나는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친구 조지 얼리

출처 : 〈노근리는 살아있다〉 372쪽

노근리 사건 생존자 서정갑님의 증언 <https://youtu.be/DjocyNI6rDE>

### 3. 노근리 사건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 활동 : 오랜 세월 감춰지고 잊혀졌던 노근리 사건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준 은인과 같은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미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희생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외면하였다. 노근리 사건은 <조선인민보>가 1950년 8월 19일에 처음 보도한 이후 44년 동안 언론 매체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1961년 시작된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30여 년 동안에도 한국 정부와 언론이 노근리 사건을 감추고 외면하는 동안 노근리 사건은 ‘금지된 이야기’가 되어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는 듯했다.

노근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건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첫 시작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1960년이었다. 노근리 사건으로 아들과 딸을 한꺼번에 잃은 정은용씨는 주한 미군 소청사무소에 손해배상과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이 시작된 1994년 이후 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은용)를 설립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노근리 사건 피해 주민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회에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되었다.



▲ 주한 미국 대사관에 진정서를 전달하러 가는 노근리 미군 양민 학살 대책위원회 임원들(1994.07.05.)

정은용씨는 1994년 4월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아 노근리 사건을 고발하는 실록 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출간했다. 소설의 형식을 빌려 세상을 향해 노근리 사건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것이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내·외신 언론사를 대상으로 노근리 사건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해 6월에는 ‘노근리 미군 양민 학살사건 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후 정구도 기획위원이 앞장서서 국내외 언론에 노근리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겨레〉 신문에(1994년 5월 4일) 6·25 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00여 명 학살사건 이란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다. 책이 출간된 직후 최초의 언론 보도였다. 당시 기사는 정은용씨와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상세히 보도했다.

‘노근리 미군 양민 학살사건 대책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게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노근리 미군 양민 학살사건 대책위원회’(이후 ‘노근리사건 피해자대책위’로 약칭) 정구도 기획위원은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국내외 문서 자료를 찾아 나섰고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에 매진했다. 마침내 1994년 8월 노근리 사건 발생 직후에 사건 현장을 취재한 르포 기사를 찾아냈다. 이후에도 노근리 사건 이슈화를 위해 관련 문서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서울의 내외신 언론 기관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찾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청원서를 한미 양국 대통령과 국회에 20여 차례나 보냈다.

### 노근리 사건 세상에 나오다

1998년 4월 미국 AP 통신 취재팀이 노근리 사건에 대한 본격 취재에 착수하자 ‘노근리사건 피해자대책위’ 정구도 기획위원은 피해자 증언 외에 실화 소설, 연구 논문, 그동안 수집한 여러 증거 문서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 AP 취재팀은 갖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가해 미군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미국 국립 문서 보관소에서 관련 문서를 찾는 등 심층 취재를 했다. 1999년 9월 29일, 미국 〈에이피(AP)통신〉은 ‘전직 병사들이 한국의 학살에 대해 말하다’라는 제목의 특별취재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1950년 7월 말, 한국의 한 철도 굴다리과 그 주변에서 400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미군의 공격으로 죽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당시 미군은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에 따라 학살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정부의 첫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미 국방부는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묘한 표현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AP통신」의 취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치밀했고, 방대했다. AP 통신의 보도는 비밀 해제된 당시 군 작전명령 중에서 ‘그들(피난민들)을 적군으로 대하라’라는 명령의 원문(原文), 노근리 사건 현장 인근 부대인 미군 제1기병사단과 미군 육군 25사단 사령부의 명령서 등 미군의 공식 문건 2건과 참전 미군 병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1950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흘 동안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입증하는 문건도 여러 건 공개됐다. 당시 기관총을 난사한 병사들의 증언을 포함해 관련자 100여명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수십 년 동안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만 전해지던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 언론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에이피(AP)통신의 보도로 노근리 사건이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이후 「뉴욕 타임스」도 이례적으로 「AP통신」 보도를 1면 주요기사로 다뤘고, 「CNN」 등 미국의 주요 방송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적당히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보도 다음 날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고, 그 자리서 진상조사 방침이 결정됐다.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 국민만이 아니라 전세계인들과 한국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1999년 12월 국내 각 언론사들은 노근리 사건을 1999년 올해의 주요 뉴스로 선정하였고 이듬해 AP 통신의 찰스 핸리, 최상훈(AP통신 서울지국 기자), 마사 멘도자 기사는 2000년 탐사보도 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한겨레**  
THE HANKYOREH  
http://www.han1.co.kr 전화 02-710-0114

**“노근리 피난민 적으로 간주 사살하라”  
미군 양민학살 공식문서 확인**

**AP통신 한국전쟁 당시 명령서 입수 공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한국 양민을 집단 학살한 이란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1950년 7월 28일)에 대한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AP통신은 한국 시각으로 30일 오전 2시 30분경 AP통신(http://www.ap.org)에 게시된 특별취재 기사에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관한 자료를 대량 포수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미군 통신사 10여명에 대한 130여쪽의 인터뷰 결과를 보도했다.

출신 증언자들은 한국전쟁 때인 지난 50년 7월 28일 중대 병영으로 출간된 노근리 공무실 정보 54쪽 밑에 적혀있던 주민들에 대해 미군이 기총소사를 개행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기총소사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해 증언자들은 정확한 숫자는 대지 못한다. 300명, 300명 또는 그 수 미달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밀해제된 미군군 자료들에 따르면 당시 양민들에 대해 기총소사를 한 전투기 조종사들은 "양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런 명령은 그들

500여명들 "피난시켜 주겠다"며 모이려고 무소문 전투기로 기총소사 한 사건이다. 물론, 위 주민들이 몰로 몰았다. 몰로 몰아 미군은 날다 달 아산에 기관총을 끌어놓고 20일 까지 날다를 쫓아다니는 양민을 자재로 모아 자재로 200여명의 양민이 숨겨진 것이 확인된 생존자들의 증언이다.

(AP통신)는 특히 당시 미국의 '제1기갑부대'와 '제2보병부대' 등은 병사들에게 "민간인이 눈에 띄면 즉으로 간주해 총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당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관련된 미군부대는 여러 개였던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마사 멘도자 기자

**AP통신 입수 미군 문건**

- 1999년 7월 27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의 명령서
- 1950년 7월 28일 제1기갑부대 제2보병부대의 명령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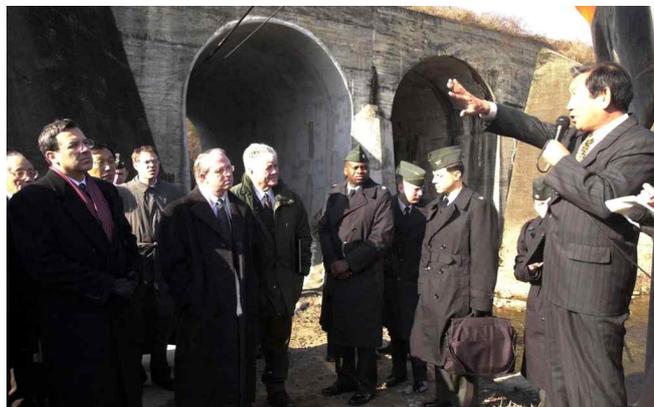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군군사령관의 명령서도 공개됐다.

- 미군군사령관의 명령서

▲ 한겨레 신문 기사(1999년)

### 미국 조사단 노근리 방문과 클린턴 대통령 유감 표명 성명서 발표

AP 통신 보도로 노근리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고 국내외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났다. 결국 1999년 10월 초,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지시를 내렸다. 노근리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참전 군인들의 증언이 큰 틀에서 일치되고 있는 만큼 한·미 합동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9년 10월 28일에는 미국 정부의 노근리 사건 실무조사단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사건이 자행된 노근리 쌍굴다리 현장의 남은 총탄 자국 등을 둘러봤다. 조사단은 이어 피해자와 유족 6명으로부터 5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증언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미 조사단 전체 회의를 열어 노근리 사건의 진상조사 작업을 이듬해인 200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 2000년 미 육군성 루이스 칼데라 장관의 사건 현장 방문

미국으로 돌아간 실무조사단은 돌연 태도를 바꿔 사건의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결국 2001년 1월이 되어서야 미 국방부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는 “1950년 7월 말 노근리 근처에서 민간인들에게 일어난 일은 전쟁에 따르게 마련인 비극의 일례로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만 규정했다.

그리고 2001년 1월 12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 행위에 대해 그것도 미국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죽음에 유감을 표시함으로써 미국의 잘못을 어느 정도 시사했으나 사과나 배상 등 민간인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발표하고 다만 유감의 표시로 희생자 추모비 건립에 118만 달러를 내놓고 280만 달러 규모의 유족 자녀 장학재단 설립을 제시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유감 표명 성명서 발표는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50여 년간의 집념 어린 진상규명 활동의 결과물이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활동이 결국 노근리 사건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사실상 '사과'나 마찬가지로인 미국 대통령의 유감 표명 성명서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한미관계사나 인권사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 美, 노근리사살 인정

클린턴 "유감" 성명...美정부 "배상은不可"

피해주민·시민단체들 강력반발 "소송제기"

한미 양국은 12일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통해 "노근리 사건은 철수 중이던 미군에 의해 피란민들이 사살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양국 조사단은 발표명단에 대해 직접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피란민에 대한 사적명령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참전 군인의 증언 등 방증 자료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3-4-28면-공명발표문 전문 8면

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사과"를 표명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담은 한 데 대해 감시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사과"를 표명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담은 한 데 대해 감시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사과"를 표명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담은 한 데 대해 감시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죽과 한복에 유감스럽다는 생각과 해석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내에 노근리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담은 한 데 대해 감시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사과"를 표명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담은 한 데 대해 감시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김대중(金大中)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미국에 상처를 입은 유

가족은 공동발표문에서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에 수세적인 전투상황 속에서 감옥에 의해 철수 중이던 미군이 1950년 7월 마지막 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란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명희기자 myeonghee@kbs.co.kr  
황영준기자 hyunghyun@kbs.co.kr  
▶ 2면에 계속됩니다



찰스 크레인 미 국방부 예비군담당 수석 부처장관이 11일 워싱턴 국방부에서 미어를 애국인 중령(우르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

▲ 2001년 1월 13일 자 한국일보 1면

### 유전자 변형 원숭이 탄생

해파리의 유전자가 이식된 푸른 빛이 비추면 털과 손톱이 녹색으로 빛나는 유전자 변형 원숭이(사자)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 지금까지 여러 동식물의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

###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유감 표명 성명서 전문

"본인은 미국인들을 대표해 지난 1950년 7월 하순 노근리에서 한국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1년여 동안 실시한 집중적인 조사는 전쟁의 비극과 전쟁이 사람들과 국가에 남긴 상처를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다. 비록 노근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과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었으나 한국과 미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고한 한국인 피난민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인은 노근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국인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많은 미국인이 전쟁의 무고한 희생이라는 고통을 경험했다. 우리는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남아 있는 상실감과 슬픔을 이해하며 동정을 느낀다. 본인은 이들을 비롯해 전쟁 중에 살해된 한국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위해 미국이 건립하는 추모비가 어느 정도의 위안과 함께 사건의 종식을 가져오기를 진지하게 희망한다. 우리가 추진할 추모장학기금은 그들을 기리는 생생한 조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으로 고통이 이 분쟁의 유일한 유산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참전용사들은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 결국 승리했다. 한국에서 진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우리 두 나라의 강한 동맹, 그리고 오늘날 양국민의 친밀감은 양국이 50년 전 함께 치른 희생을 입증하고 있다."

## 4.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특별법 제정

노근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미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반발해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였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대책위'는 2002년 10월, 사건 진상 재조사 및 피해자 배상을 위한 '노근리 사건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노근리 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규철 국회의원과 피해자들이 1년 4개월 동안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결국, 2004년 2월 '노근리 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후 약칭 노근리사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해 7월부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근리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17년 만인 2021년 9월 28일,

### 노근리 사건 관련 활동 일지

- 1994년 4월 15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 고 정은용씨의 실화소설 출간
- 1999년 9월 30일 미국 AP통신, 노근리 사건 보도
- 10월 1일 클린턴 미 대통령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지시
- 10월 2일 김대중 대통령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지시
- 2001년 1월 12일 노근리 사건 진상조사결과 한미 공동발표 및 클린턴 대통령 유감 표명
- 2004년 2월 9일 노근리 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년 10월 27일 노근리평화공원 준공식

(자료: 노근리평화공원)

노근리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추가 희생자 심사(1년 이내) ▷노근리 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희생자·유족의 권익 보호 ▷트라우마 치유 사업실시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렇게 개정된 노근리사건법에 따라 사건 발생 70여 년 만에 희생자·유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되었다.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람속으로

정구도씨 “노근리사건 피해보상 꼭 이뤄져야”



6·25전쟁 당시 대표적 양민학살사건인 노근리 사건을 세상에 알린 정구도 경운대 교수. 1994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노근리 사건 관련 중군기자역 기사를 들여 보이고 있다. 신원건기자

“산 자의 인권뿐 아니라 죽은 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정부가 노근리사건 발생 이후 54년 만에 6일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는 소식을 접한 ‘노근리 미군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의 정구도(鄭求濤·49) 경운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5일 “감격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근리사건이란 6·25전쟁 때인 1950년 7월 25일 북한군에 밀려 퇴각하던 미군이 총복 영동군 노근리 철교 밑에서 나을간 기관총을 난사해 노근리와 인근 주곡리, 임계리 주민 등 최소 248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노근리사건으로 형(당시 5세)과 누나(당시 2세)를 잃었다. 어머니(77)도 열구리와 팔꿈치에 총상을 입었다.

정 교수의 아버지 은용씨(81)는 40여년 전부터 노근리사건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홀로 외롭게 싸웠다.

1994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어렵게 대책위를 구성해 은용씨가 위원장을 맡았고 정 교수가 대변인을 지처했다. 그해 7월 말 정 교수는 수개월 동안 미국 자료를 뒤진 끝에 노근리사건을 취재한 중군기자의 기사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지까지는 또다시 5년이 걸렸다.

2001년 1월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정 교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며 흥분했다.

그러나 정부의 진상조사는 피해자를 확정하고 적절히 보상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했다.

2001년 초 입법을 추진했으나 대다수 국회의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올해 2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정 교수의 직장은 국회나 다름없었다.

정 교수는 “특별법이 어렵게 제정됐지만 역시 보상에 관한 내용이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근리사건과 비슷한 양민학살사건이 6·25전쟁 때 60건이 넘는다고 다른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동아일보: 정구도씨 “노근리사건 피해보상 꼭 이뤄져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40705/8079982/1>

5. 노근리 사건의 남은 과제

노근리사건법은 2004년 제정됐으나, 당시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조항이 없어 그동안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노근리 사건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2021년 9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부대 사항으로 담은 노근리사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피해자 보상에 관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이후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됨에 따라 노근리사건 피해자들도 이에 준하는 보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근리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정부와 국회에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해당 노근리사건법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한편 2001년 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유감 표명 성명서를 통해 추모탑 건립비용 118만 달러와 유자녀 장학금으로 매년 56만 달러씩, 5년간 총 280만 달러를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민간인 피해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들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시 앞으로 밝혀질 미군 범죄와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전액이 미국 국고로 회수되었으며 이후 유족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위로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미해결된 노근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은 오늘날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정부에게도 과제는 남아 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미국이지만, 우리 정부도 미군의 노근리 학살에 책임이 있다. 당시

한미 당국은 피난민 통제와 소개 조처를 한국 정부가 하도록 합의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민간인 대피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노근리 사건 발생하기 이틀 전에 영동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주민들을 방치한 채 자기들만 빠져나갔다. 우리 정부가 피난민 소개를 제대로 했더라면 노근리에서의 참극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노근리 사건 생존피해자가 20여 명만 살아있다. 이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정부와 국회는 노근리 사건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노근리사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해야, 완전한 원상회복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자들의 상처가 일정 부분 치유되고 인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 6.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

노근리 사건은 사건의 한국전쟁 초기 미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여전히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에 발생한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사건이며 동시에 성숙하고 발전적인 미래의 한미 관계 유지와 발전에도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노근리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이 기억해야 할 역사 및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노근리 사건 피해자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클린턴 정부가 약속했던 피해자 추모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노근리 사건 당시 가해 미군들의 유족들과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 간의 화해와 치유 사업이 이루어질 때 노근리 사건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의미가 실현될 것이다.

한편, 노근리 사건은 전쟁 중 일어난 수많은 민간인 희생 사건들 중에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을 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건이다. 노근리 사건은 '노근리 미군 양민 학살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증언을 모으고 학술적,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전쟁의 참상과 아울러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일깨워 주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근리 미군 양민 학살 대책위원회'의 끈질긴 활동은 특히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남겼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유감 표명 성명서를 이끌어 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과 미국 정부 기관, 역사학자가 아닌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통해 세상에 알린 공공역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공공역사

공공역사는 제도권 안의 공적 교육기관인 학교, 대학, 연구소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공공 영역에서 역사학자와 대중들이 함께 역사 지식을 생성하는 데 참여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197~198p

노근리 사건은 한반도에서 어떤 이유로도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한 사건이다. 또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평화가 곧 인권 보호라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다. 따라서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의 비극적이고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가치의 상징이 되고 있다.

＝ 학습 활동 ＝

1. 노근리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2. 미군은 왜 피난민들에게 비행기로 폭격하고 총을 쏘았을까요?

---

---

---

---

3. 피해자 중심의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활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

---

---

---

4. 노근리 사건 진상 규명 과정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

---

---

5. 노근리 사건이 지닌 인권과 평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

---

---

## [읽기 자료]

###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1

####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故정은용 선생님

##### 정은용(1923.04.13.~2014.08.01.)

△1923년 4월 13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144 출생 △영동공립보통학교(현 영동초)-영동중-서울 철도조사원양성소 전신과 졸(1941) △경성철도국 통신구 전신계 근무(1941) △전문학교입학자격 검정시험 합격(1942) △경찰간부시험 합격. 경위로 경찰입문(1948) △중앙대법문학부 2학년 때인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중앙대 법정대 법학과 졸(1953) △충남경찰국 공보주임·감찰주임(1954-56) △반공연맹충남도지부 총무과장(1968) △노근리미군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1994)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2006)

노근리 사건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정은용 선생이 1994년에 실화 소설인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출간하면서부터였다. 소설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이다. 서울에서 대학(중앙대 법학과)을 다니던 정은용은 6·25가 발발하자, 부모와 아내, 두 아이가 살고 있는 고향(영동읍 주곡리) 마을로 내려왔다. 미군의 소개령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임계리로 피난했다가 이튿날인 7월 24일 “이 곳을 빨리 떠나라”는 부모, 아내의 요구와 애원에 혼자 산을 넘어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났다.

비극은 다음날부터 일어났다. 그의 가족은 26일 철길에서 있었던 미군 비행기의 공격에서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노근리 쌍굴다리의 참극은 피해가지 못했다. 쌍굴로 피난한 그 날 한밤중에 두 살 난 딸 구희가 몹시 울기 시작했다. 아이를 달래기 위해 정은용의 어머니가 손녀를 업고 터널 밖으로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가 미군이 쏜 총에 구희가 맞아 숨졌다. 딸을 잃은 아내 박선용은 다섯 살짜리 아들(구필)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27일 새벽 구필을 데리고 노근리 쌍굴다리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산길을 헤매던 박선용은 미군 초병이 쏜 총에 옆구리를 맞고 중상을 입었고, 그 총알은 등에 업고 있던 아들 구필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피난지인 부산에서 극적으로 아내를 만난 정은용은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크게 흐느껴 울기만 한 채 답을 못하는 아내를 보고는 “이제 내 생애의 모든 행복은 끝이 났다”(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고 생각했다.

1950년 12월 그는 해방 직후 일했던 경찰(충청남도 경찰국)에 복귀했다. 이후 반공연맹(한국자유총연맹의 전신)에서 일하다가 관권선거에 동원되는 것이 싫어서 관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노근리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4·19 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1960년 어느 날 대전에 살던 정은용은 미군이 6·25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배상한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봤다. 그는 고향의 피해자 몇 명과 함께 서울의 미군 소청사무소에 노근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미군은 그해 11월 “접수 기한이 지났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그해 말 워싱턴의 미국 정부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다시 보냈지만, 이번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는 노근리 사건 자체를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지속됐다. 정은용은 소설 형식을 빌려 사건을 알리려 했다. 1977년 문학 월간지인 <한국문학> 소설 공모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중편소설을 내서 입선했으나, 입선에 그친 탓에 글이 실리지는 않았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에는 <문화방송>의 6·25 특집 라디오 드라마 대본 공모에 노근리 사건을 주제로 한 글을 내기도 했다. 역시 민감한 내용이어서인지 당선작으로 뽑히진 않았다. 정은용은 포기하지 않고, 틈틈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모으는 등 노근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했다.

결국 1994년 이 사건을 다룬 장편 실화 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펴내 사건의 실체를 처음 세상 밖으로 알렸고, 그 뒤 노근리 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와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출처: 한겨레 신문(2019)

##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2

###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

노근리 평화기념관 전시실에 커다랗게 박혀있는 말. ‘인권회복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희생으로 이뤄지며, 평화는 누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 앞에서 정구도 이사장은 몇 번이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평화는 절대 공짜가 아니고, 평화만이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노근리평화기념관의 관장이자 노근리국제평화 재단의 이사장인 정구도 이사장을 만났다.

#### 노근리 사건, 잊혀진 희생자들

한국전쟁 초기였던 1950년 7월, 미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전선은 하루가 다르게 아래로 밀리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영동방어를 맡았던 미군은 북한군이 몰려오는 피난민들 사이에 숨어서 침투하지 않을까 경계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영동군 관내 여러 마을에도 소개령이 내려졌고, 임계리와 주곡리 주민들도 피난길에 올랐다. 7월 25일, 두 마을 주민들을 주축으로 약 500~600여명으로 추정되는 피난민들이 경부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피난길에 만난 미군의 통제로 무리는 경부선 철길 위로 올라가고, 짐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상공에 미 군용기가 나타났다.

어리둥절해하던 사람들 위로 순식간에 총알이 날아들었고, 수많은 사람이 철길 위에서 영문을 모르고 죽어갔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리 아래 쌍굴로 피했지만, 이번엔 굴 안으로 충격이 시작됐다. 7월 26일 밤, 굴 안에 숨어 있던 젊은 생존자들은 밤을 틈타 밖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과 어린이, 노인들은 탈출하지 못했고 3일간 계속된 총격 끝에 대다수가 사망했다. 7월 29일 노근리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굴 안에서 버티던 소수의 생존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5일간 수백 명이 사망했고, 공식 확인된 사망자 중 72%는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이후 전쟁은 멈췄고 한반도는 분단됐으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더욱 중요해졌다. 피난길에 죽었던 수백 명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아무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노근리 사건은 그렇게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진 것 같았다.



▲ 노근리 국제 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

#### 싸워온 시간들

정 이사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부모님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이 일로 아이 둘을 잃었고, 어머니도 큰 부상을 입었다. 1960년,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소청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는 말을 꺼내기 힘든 분위기가 됐다. 그러자 아버지는 당시 사건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정 이사장은 아버지 소설 원고를 퇴고하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됐고, 이는 노근리 사건을 일리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계기가 됐다. 이후 2년에 걸쳐 10번에 가까운 퇴고를 한 후 소설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닌 결과 1994년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가 출판됐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노근리 사건을 몰랐고,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내길 꺼렸다. 미군 관련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를 창립했지만, 참가자는 정 이사장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다섯 명 뿐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 각 정당 대표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앞으로 계속 진정서를 보냈지만 미 정부의 답변은

“사건 현장에는 미군이 없었다” 또는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같은 것들뿐이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국내외 언론사에 끊임없이 당시의 진상에 대해 알렸다. 노근리사건 관련 논문을 학계에 발표하고 추가 증거를 모았다. 4년 가까운 끈질긴 노력 덕분에, AP통신에서 노근리 사건에 대한 심층 취재를 시작했고 1999년 탐사보도가 터지자 곧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 유수의 언론사들이 대서특필했다. 한국 언론도 노근리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고, 미국과 한국 정부도 결국 움직였다. 정 이사장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 잊혀진 사람들을 찾아내기까지

1999년 10월,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미 공동 진상조사와 피해접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다른 민간인 학살도 알려졌다. 조사 끝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피해자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유감 표명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건 발생 50년 만이었다.

“미군 관련 사건에 대해 미국 현직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한 것은 노근리 사건이 유일합니다. 한미관계사나 인권사 측면에서 볼 때 기념비적인 일이죠. 피해자와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미 정부는 희생자 추모비 건립과 희생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제공을 제안했다. 하지만 피해자대책위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미국이 제시한 후속 조치 사업은 한국전쟁 때 벌어진 모든 미군 관련 사건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노근리 사건 외에 조사가 진행된 바가 없어 나중에 다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후속 조치는 결국 무산됐다.

정 이사장의 아버지는 피해접수 이후에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자 2002년 노근리사건특별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노근리 사건의 진상 재조사와 배·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2년 가까운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만장일치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으로 실시된 피해자 심사 결과, 총 226명의 희생자와 2,240명의 유족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후 55년이나 지난 뒤였기 때문에 실제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사실을 심사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에 비해 상당히 앞선 법이고, 사건 발생 50여 년 만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근리 사건과 희생자를 인정했으니까요.”

### 인권회복과 평화, 노근리 정신

특별법 덕분에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평화공원도 만들어졌다. 공원 내에는 복원된 쌍굴 사건 현장과 희생자 추모탑, 평화기념관, 교육관 등이 들어섰다. 연간 약 14 만명이 방문하는 이 공원은 사람들에게 전쟁이 초래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보여주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한다.

“많은 인권 침해 사건이 역사적 배경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가 연결되고, 한국전쟁과 노근리 사건이 연결되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재발됩니다. 노근리 사건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역사와 인권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 사건이 다른 인권 침해 사건 해결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 중에 이만큼이나 진척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다른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많아졌고,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노근리 사건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의 시작을 연 셈이다.

인권 회복의 과정은 지난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그 고단하고 외로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잊혀진 피해자들에 대해 알리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헌신했던 시간. 그 속에서 정 이사장이 삶으로 외쳐온 말은 바로 생명의 존엄, 그리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회보 「인권」 2020년 6월호

[참고자료 1] 시사인: 72년간 1달러도 받지 못한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00>

[참고자료 2] 중앙일보: “72년 전 미군에 피란민 희생, 한국 정부도 책임”...대법 선고 앞두고 청원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601>

[참고자료 3] 노근리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표현한 노래

## 노근리 하늘

작사·작곡 김의철, 노래 윤선애

비는 내리는데 비는 내리는데  
한마음 속에 비는 내리는데  
무엇이 안타까워 무엇이 서러워  
내 가슴속 깊이 비는 내리는데  
창밖에 쏟아지는 빗소리 들리고  
깊어가는 어두운 이 밤이 왜 이리 애달픈가  
비는 내리는데 비는 내리는데  
내 님 떠나간 길에도 비는 내리는데

비바람 불어와 떨구는 잎새는  
총이 없는 마을 노근리(No Gun Ri)  
하늘 별들은 반짝 빛나고 고요만하네  
그 무슨 사연 있나 철길 따라서  
뛰놀던 어린 아이들 지금 어디 갔나  
하늘위에 별이 됐나 은하수 건너서  
밝은 달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오늘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꿈에라도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나요  
푸른 숲 파란 하늘 밑 평화롭던 마을  
주홍 빨강 노란색 저녁노을이  
물들던 마을 굴뚝엔 하얀 연기나네  
먼 산에 누나 얼굴이 방긋이 웃으며  
칠월의 슬픈 하늘에 떠오르네요  
먼 길 떠나간 아빠 보고 싶어서  
오늘도 철길 따라서 한없이 걷네요

세월이 지나가고 칠순의 나이  
오늘도 철길 따라서 끝없이 걷네요  
그 무얼 찾으려고 회상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들 눈앞에 어리네  
젖을 먹이던 엄마 얼굴 총탄에 맞아서  
피흘리며 죽어가도 눈감지 못하고  
아가는 배고파서 울고 있던 날  
그 날을 잊을 길 없어 목이 메이네요  
오늘도 철길 따라서 한없이 걷네요

[https://youtu.be/Ytkx1syok8s?si=3xKawKWFTSwPXg3y\(5:01\)](https://youtu.be/Ytkx1syok8s?si=3xKawKWFTSwPXg3y(5:01))

[참고자료 4] 심포닉 칸타타: 노근리어 영원하라 (정구도 작사, 허순봉 작곡)

<https://youtu.be/n4urRheITjo>(11:04)

# 노근리어 영원하라

정 구 도(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본 시는 교향시적 칸타타  
(Symphonic Cantata)  
"노근리어 영원하라" 가사  
의 일부임

## I. 추모

청상아! 너는 알리라, 너는 알리라,  
예전엔 보리 내음 가득한 노근리가 아름다웠음을,  
산에 들에 철철이 생명 가득한 땅이었음을,

실개천아! 너는 지금 보고 있으리라,  
너는 보고 있으리라,

6.25 전쟁으로 산상이 짓밟혔던 이 산하를,  
사랑하는 이들의 애절한 이별을,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노근리를 어찌하여 사랑의 그늘로 덮으셨나이까,  
죄 없이 쓰러져간 그대 영혼의 이 땅을 옥 놓아 부른다,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서러운 횃웃자랑에 애곡소리 가득하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얼굴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린다,

철후 같은 이등숙에 끝내 눈을 감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 이들이여,

당신이 그리워 지나간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구슬피 우는 이 몸 모를 산세소리에 잠 못 이룬다,

하늘의 별 되기에 아직은 이른 여리고 어린 꽃망울마저  
짓밟은 너의 야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로 산상이 부서진다,

오! 이것이 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요, 고통이랴오,  
슬픔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 II. 평화를 기원하며

하늘이 우리의 슬픔을 병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앓을 벗기시며 기쁨으로 띠를 띠우시네,  
선혈 뿌려진 노근리 붉은 들관에 포도나무 꽃 피어

향기 가득한 푸른 들관이 되었구나,

노근리는 아골 골짜기 같았으나  
이제 다시 생명의 땅으로 변모하였네,  
깃발 가득했던 대지 위에 정의가 강같이 넘치고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비친다네,

평화의 횃빛 비둘기 노근리 동산을 비상하여  
향방도 창공에 높이 날아오르고  
은 지구위에 평화가 가득하구나!  
증오의 삭풍은 물러가고 이제 노근리동산에  
평화의 파스란 바람 불어라!  
불어라! 화해의 훈풍아 불어라! 불어라!

화해와 용서의 빛 온 누리에  
밝게 비치리라, 밝게 비치리라,  
세상 사람들이여! 노근리를 아는가,  
이곳에 와서 평화의 꿈을 꾸어라!  
이제는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 말자!  
총칼을 불사르자,

우리 모두 나시 온 땅에 평화가득 차게 하리라,  
우리 함께 평화의 종을 힘차게 울리세,  
우리 모두 평화의 종을 힘차게 울리세,

이 땅의 비극은 영들의 붉은 피로 다 씻겨 졌다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용서의 찬을 들자!  
화해의 축배를 높이 들자!  
생명존엄의 촛불을 켜고, 평화의 깃발 높이 들어라!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 모두 평화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자!  
아름답다, 노근리어! 아름답다, 노근리어!  
같이같이 영원하라! 노근리어 영원하라!

# 노근리 사건 타임라인 카드 뉴스 만들기

\_\_학년 \_\_반 \_\_번  
 이름: \_\_\_\_\_

- 학습 목표** • 노근리 사건의 배경,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역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활동 안내** • 노근리 사건과 피해자 중심의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과정을 조사하여 주요 장면과 내용을 작성하여 타임라인 카드 뉴스를 제작한다.

순서	<b>1</b>	<b>2</b>	<b>3</b>
	장면과 내용 ----- ----- -----	장면과 내용 ----- ----- -----	장면과 내용 ----- ----- -----
순서	<b>4</b>	<b>5</b>	<b>6</b>
	장면과 내용 ----- ----- -----	장면과 내용 ----- ----- -----	장면과 내용 ----- ----- -----

# 노근리 사건 가상 5일 일기 쓰기

\_\_\_\_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

<b>학습 목표</b>	• 노근리 사건 생존자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5일 일기를 작성할 수 있다.
<b>활동 안내</b>	• <노근리 사건 당시 10살 소년의 증언 기록>을 참고하여 희생자가 경험한 5일을 상상하여 일기를 써보자. • 생존자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5일 일기를 작성한다.

## 1. 노근리 사건 당시 10살 소년의 증언 기록

참혹한 학살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양해찬(梁海燦·59·충북 영동군 영동읍 임계리)씨. 49년 전으로 기억을 더듬어 내려가며 치를 떨었다. 전쟁 발발 한 달 뒤인 1950년 7월 26일. 미군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주민들을 피란길로 내몰았다. 당시 열 살이었던 양씨도 가족, 친척과 함께 4번 국도를 따라 수백 명의 피란민 행렬에 끼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황간면 노근리에 다달았을 때였다. 미군들이 탱크로 길을 막으며 왼쪽 언덕에 있는 경부선 철길로 피란민들을 올려보냈고 잠시 후 「쌩쌩이」(미군 전투기) 1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이어 살 떨리는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다. 쌩쌩이는 나무 밑에서 주먹밥 등으로 점심을 먹던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포탄을 투하했고 기관포도 불을 뿜었다. 『미군이 미리 매복해 있었는지 철길 좌우 산속에서도 총알이 쉴새 없이 날아왔습니다. 아비규환 속에 수백 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살아남은 100여 명의 주민이 철로 밑 쌍굴로 대피했으나 이곳에서 2차 학살이 벌어졌다. 미리 있던 미군의 총격에 또다시 수십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굴속에서 쥐죽은 듯이 엎어져 핏물로 목을 축이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굴 입구에 있는 샘물을 먹으러 굴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모두 총탄에 희생됐습니다』

4일 후 미군들이 사라지고 굴 밖으로 나온 양씨 옆에는 부모님과 누나만이 남아 있었다. 피란길을 함께 했던 할머니와 형, 동생, 고모, 고모부, 고종사촌 동생 등 6명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출처: 한국일보 기사(1999.09.30.)

※ 노근리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양해찬씨는 현재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으로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2. 가상 5일 일기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작성해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 절 취선 -----

---

---

---

---

---

---

---

---

## 노근리 사건 바로 알기-2차시

### 1. 생각 열기

#### 노근리를 세상에 알린 언론

- MBC 충북 NEWS <노근리 찾은 특종 기자. 20년 취재 기록 기증> 영상(약 3분)을 보고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언론이 왜 중요한지 작성해보자.

---

---

---

---

### 2. 학습 활동 1

#### 노근리 사건 SNS 작성하기

-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SNS를 작성하기

### 3 학습 활동 2

#### 노근리 사건 배지 도안하기

-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여 도안 만들기

### 4. 학습 활동 3

#### '나에게 노근리 사건이란?' 인증샷 촬영하기

-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로 표현할 수 있다.

## <노근리 사건> SNS 작성하기

\_\_\_\_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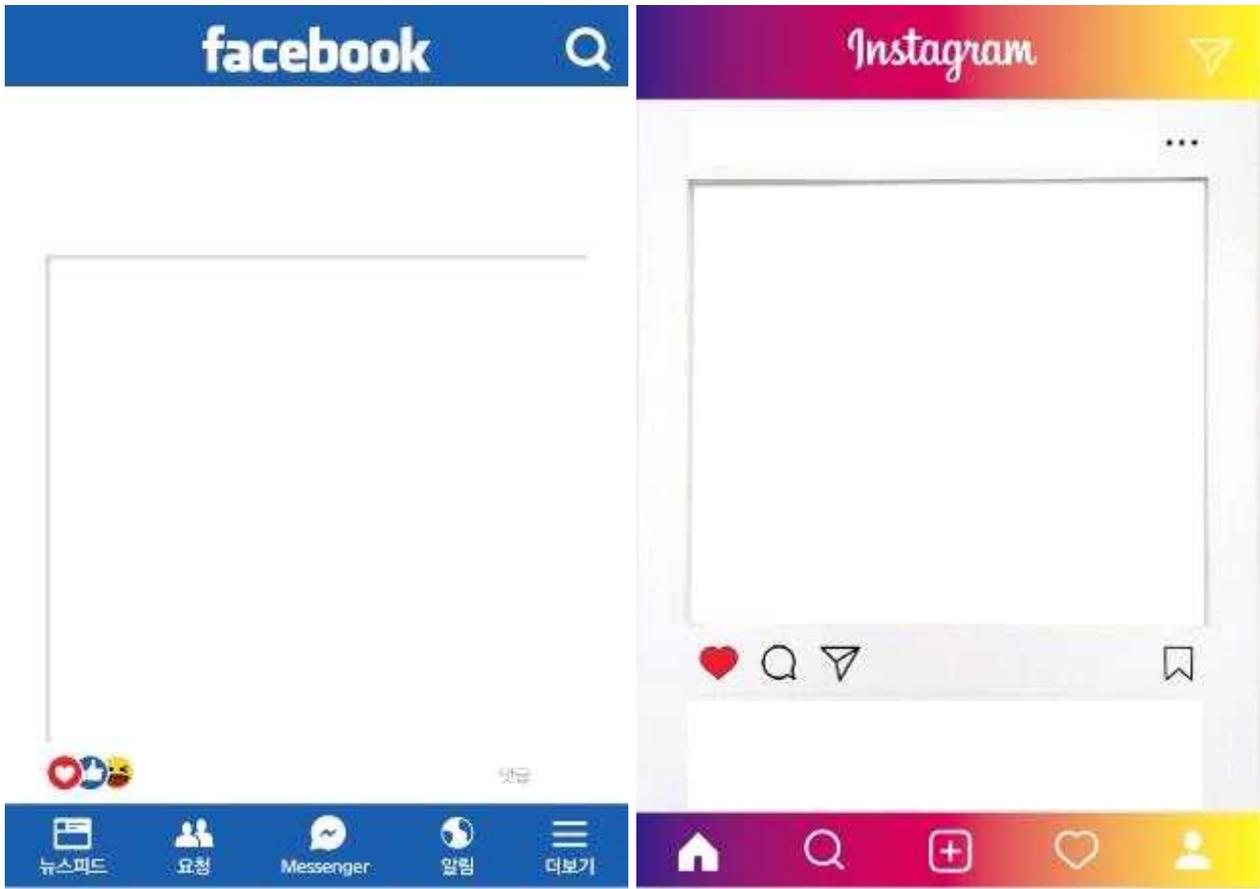
**학습 목표** •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SNS를 작성할 수 있다.

**활동 안내** • <노근리 사건>를 알리는 SNS 문구와 이미지 선정하여 작성하기  
 • 자신이 제작한 활동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다.(또는 교실에 전시하기)  
 • SNS 문구는 노근리 사건, 진실 규명 과정,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인물 등이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 ■ SNS에 들어갈 문구 작성하기

구분	내용	
SNS 제목		
SNS 문구	중심문구	
	보조문구	
이미지 선정		
기타		

<SNS 양식>



<h1>노근리 사건 배지 도안하기</h1>		학번	
		이름	
<b>학습목표</b>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그림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상징할 수 있는 배지를 제작하기 위한 도안을 작성해보세요.</li> <li>■ 배지 도안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소개 글을 작성해주세요.</li> <li>■ 배지 도안하기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실제 배지는 2.5cm×2.5cm 내외로 제작되며 최대 5색까지 사용 가능합니다.</li> <li>② 아래 배지 예시를 참고하여 도안을 작성해보세요.</li> </ul> </li> </ul>	

배지 예시			
제주 4·3 사건	5·18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평화 통일
			
4·3의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스러져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4·3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꽃입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있는 추모탑과 국화꽃을 넣어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 추모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환생하시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남북공동선언 기념 배지로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남과 북의 정상 이 손을 잡는 모습을 표현하여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학교 노근리 배지’ 디자인 응모(24.9.30까지) → [nogunri2018@naver.com](mailto:nogunri2018@naver.com)  
 디자인 우수작을 선정하여 실물 배지 제작하며, 노근리 평화 수업 참여 학교에 배포합니다!

노근리 사건 배지 도안하기	
구분	내용
배지 도안	
배지 도안 소개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ccc;"/>

# “나에게 노근리 사건이란?” 인증샷 찍기

\_\_\_\_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

**학습 목표** • 내가 생각하는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안내** • 자신이 생각하는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그 이유를 자신의 삶을 연결하여 작성한다.  
 • 자신이 작성한 문구를 학급 친구에게 설명한다.  
 • 인증샷을 찍고 ‘함께 만드는 노근리 지도’ 우리 학교 위치에 게시한다.

‘노근리평화수업’인증샷 보내기 → 함께 만드는 노근리 지도  
<https://nogunri.vercel.app/login>



절 취 선

# 노근리 사건이란?

# 이다.

# 왜냐하면

# 때문이다.

# 함께 만드는 노근리 지도를 활용한 노근리 평화수업

2024  
노근리 평화수업

함께 만드는  
노근리 지도

노근리 지도 만들기



QR 코드 찍어요

함께 만드는  
노근리 지도



No Gun Ri  
Interactive Map

N 네이버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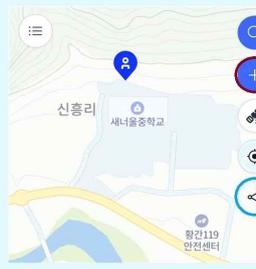


'nogunri.vercel.app'  
이(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키오투'이(가) 현재 사용자의  
대략적인 위치에 대해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웹  
사이트가 사용자의 대략적인  
위치를 사용합니다.

허용 안 함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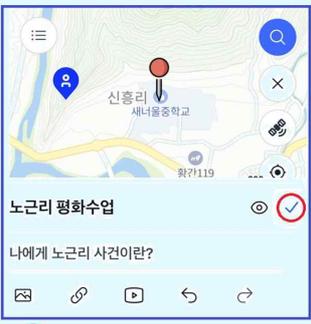
위치 사용 허용해요

함께 만드는 노근리 지도에  
우리 학교 평화수업을 기록할 수 있어요



+를 눌러요

SNS 나눔해요



제목에  
노근리 평화수업  
꼭 써주세요

저장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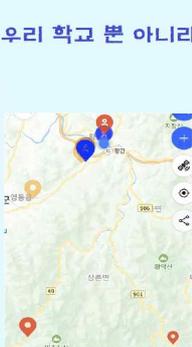
사진 올려요

영상 링크해요

검색창

노근리 평화수업을 검색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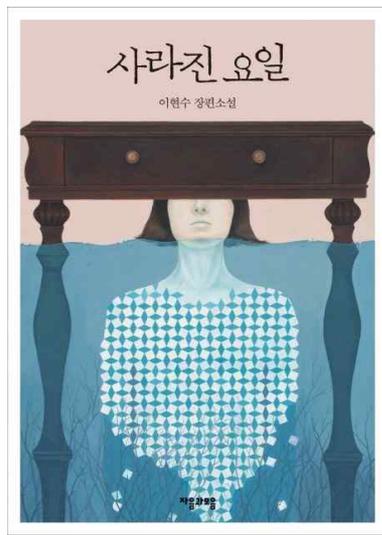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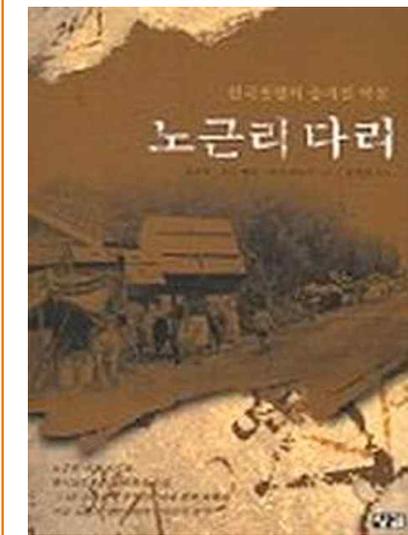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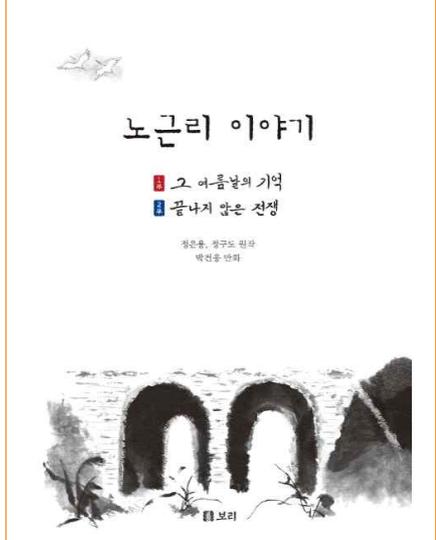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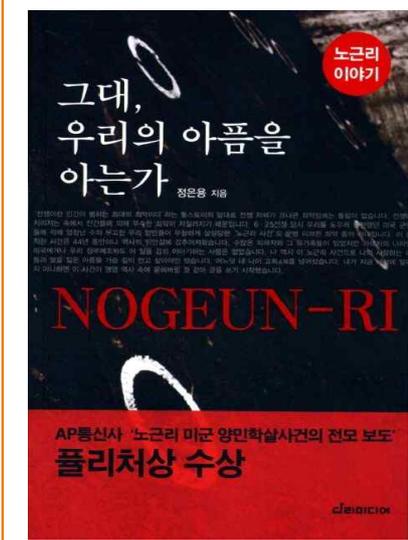
우리 학교 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노근리 평화수업을  
나눌 수 있어요

5. 노근리 사건 추천 자료

노근리 사건 관련 도서



## 노근리 사건 관련 영상

- 영화 <작은 연못> 미니 다큐(05:59)  
[https://youtu.be/7j\\_PbwEA7NE](https://youtu.be/7j_PbwEA7NE)



작은연못 미니다큐

- 청주 MBC 노근리 다큐 1부(48:12)  
<https://www.youtube.com/watch?v=cCqYzuFSY88>



청주 MBC 노근리 다큐 1부

- 청주 MBC 노근리 다큐 2부(43:52)  
<https://www.youtube.com/watch?v=UWf4ucefWJQ>



청주 MBC 노근리 다큐 2부

- 청주 MBC 노근리 다큐 3부(41:09)  
<https://youtu.be/uCNKmBnYBq8>



청주 MBC 노근리 다큐 3부

- 노근리 사계 봄(03:02)  
<https://youtu.be/ZUeNrLBPpPs>



영동노근리 봄

- 노근리 사계 여름(05:36)  
<https://youtu.be/FPbcihBpNeA>



영동노근리 여름 국문

- 노근리 사계 가을(04:51)  
<https://youtu.be/cHrWGYmGeJM>



영동노근리 가을

- 노근리 사계 겨울(07:46)  
<https://youtu.be/kfyPgYDsR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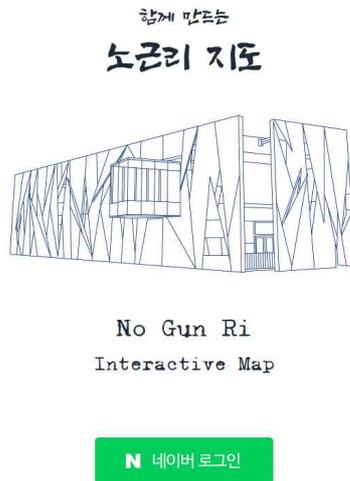
영동노근리 겨울

## 노근리 사건 관련 추천 사이트

- 노근리 평화 공원 : <https://www.yd21.go.kr/nogunri/>



- 함께 만드는 노근리 지도 : <https://nogunri.vercel.app/login>



- Korean War Legacy Foundation(KWLF) : <https://koreanwarlegacy.org/>



## 6. 노근리 사건 자료 제작 참고 도서

### 노근리 사건 관련 도서

1.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씨마스, 지학사, 천재교육, 해냄에듀)
2.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보고서(2006)
  - 발행: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 작성: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기획단
  - 편집: 사람과 지혜
  - 인쇄: 삼영 D•P
3. 노근리는 살아있다(2020, 정구도 지음, 펴낸 곳((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만든 곳((주)영림카디널))